

고난도 역사다리 자료집

9개 취약 유형 × 각 10문항 = 90문항

쉬운 문제에서 최고난도까지, 어려운 구간을 두껍게

90문항

9개 취약유형

첫 행동 · 차단 규칙

2021~2026

문항 원문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문항의 출처(연도·시험·번호)를 보고 공식 문제지에서 펴서 사용하세요.

이 자료집이 제공하는 것은 첫 행동 · 막히는 지점 · 개념 혼동표 · 오답 차단 규칙 · 시험장 요령입니다.

유형은 잡았는데, 내 실제 오답은 어디가 뚫려 있을까?

이 자료집은 사회문화 고난도 9개 유형을 다룹니다.
그런데 학생마다 뚫린 자리는 다릅니다. 아래 두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모의고사 진단 서비스

모의고사진단서비스.kr

성적을 입력하면 취약 영역과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이 자료집의 9개 유형 중 어디부터 볼지 정하지 못했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수시 진단 서비스

수시진단서비스.kr

성적과 생기부로 수시 지원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정시만 보고 있다면, 버리고 있는 카드가 없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2027학년도 수능이 현행 사회탐구 선택과목의 마지막입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바뀝니다.

이 자료집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같은 방식의 역사다리 자료집을 과목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형 1 / 9

사회 집단·조직·사회화

개수 세기와 겹분류

10문항

난도 1/5 → 5/5

쉬운 문제 → 최고난도 순

어떻게 쓰는가

- 1 유형을 하나 고른다. 먼저 그 유형의 **시험장 루틴 5단계**와 **흔동표**를 읽는다.
- 2 1단계 문항부터 순서대로 푼다. **목표 시간**을 재고, 넘기면 그 자리에서 멈춘다.
- 3 막히면 해설을 바로 열지 말고 **‘막히면 여기부터’**를 먼저 연다.
- 4 채점 후 **가장 많이 고른 오답**과 **차단 규칙**을 소리 내어 읽는다.
- 5 같은 유형에서 3문제 연속 목표 시간 안에 맞히면 그 유형은 통과다.

인쇄할 때는 각 유형 페이지 상단의 ‘문제만 인쇄’ / ‘해설 포함 인쇄’ 버튼을 쓴다.

이 유형이 왜 어려운가

이 유형은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세는 대상이 많아서 어렵다. 자료 한 장에 고유명사가 8~15개 흩어져 있고, 선지는 그 명사들을 서로 다른 분류축(공식 조직·비공식 조직·자발적 결사체·공식적/비공식적 사회화 기관·1차/2차 집단·공동/이익 사회)으로 다시 세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한 번 세고 버리면 선지마다 처음부터 다시 세게 되고, 3점짜리 한 문항에 3분이 넘어간다.

시험장 루틴 이 순서대로만 손을 움직인다

- 1 자료를 읽으며 집단 이름(고유명사)에 전부 동그라미를 치고 왼쪽부터 번호를 붙인다.
- 2 인물별로 세로줄을 긋고, 동그라미 친 이름을 '소속'과 '말로만 언급' 두 칸으로 갈라 적는다.
- 3 이름마다 기호를 한 번만 달아둔다. 공(공식 조직)·비(비공식 조직)·자(자발적 결사체)·공사/비사(공식적/비공식적 사회화 기관)·1/2(1차·2차 집단).
- 4 선지를 읽을 때 축 이름('비공식 조직',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밑줄부터 긋고, 이미 달아둔 기호만 세어 선지 옆에 숫자를 적는다.
- 5 두 숫자 사이에 부등호를 적고 선지의 서술과 대조한다. 두 수가 같게 나오면 '같다' 선지를 먼저 확인한다.

반드시 구분 헷갈리면 여기로 돌아온다

구분해야 할 짝	가르는 기준
비공식 조직 ↔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조직은 '같은 공식 조직 안의 구성원끼리' 만든 것이어야 한다. 자발적 결사체는 그냥 뜻이 맞아 모이면 된다. 회사 밖 테니스 동호회는 자발적 결사체지만 비공식 조직은 아니다.
비공식 조직 ↔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조직'은 집단 분류축, '기관'은 사회화 목적 축이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사회화가 일어나는 곳(회사·언론사·단체·가족·잡지)이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 ↔ 공식 조직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 자체를 목적으로 세웠는가'만 본다. 학교·대학원·학과·대안 학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 회사·은행·방송국은 공식 조직이지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1차 집단 ↔ 공동 사회	1차 집단은 접촉 방식(전인격적·친밀), 공동 사회는 결합 의지(선택 없이 자연 발생)를 본다. 결

	합 자체가 목적이면 공동 사회다. 가족은 둘 다 지만, 동호회는 친밀해도 이익 사회다.
향우회·동창회 ↔ 1차 집단	출신이 같다고 1차 집단이 아니다. 향우회·총동 창회는 뜻이 맞아 결성한 이익 사회·자발적 결사 체로 처리한다. 1차 집단 여부는 판정하지 말고 넘어간다.
자료에 적혀 있는 집단 ↔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	선지가 '적혀 있는'이면 언급된 것 전부를 세고, '속해 있는'이면 소속만 센다. 과거형('활동한 적 이 있습니다')은 적혀 있지만 속해 있지는 않다.

이 유형의 반복 함정

- '~보다 많다/적다' 선지의 두 수가 실제로는 같아서 오답이 되는 구조. 2309-07 ①(4대4), ②(3대3), 2311-07 ②(3대3)가 전부 이 형태다.
- 학과·대학원·대안 학교처럼 눈에 잘 안 띄는 명사를 빼먹는다. 2511-08은 메모지 서명줄의 '전자 공학과', '사회학과'를 세야 답이 맞는다.
- '비공식'이라는 글자만 보고 비공식 조직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같은 것으로 센다.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자료에 이름이 나온 집단을 뺀다. 2509-13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아'인데도 노동조합을 세야 한다.
- 잡지·신문 같은 대중 매체를 사회화 기관 목록에서 누락한다. 2511-08의 '잡지', 2509-13의 '신문'이 답을 결정한다.

1단계 관료제 비교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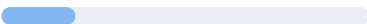
2023학년도 수능 14번 · 3점 · 목표 55초

지문에서 A를 관료제로 확정하고 다섯 특징을 방향만 판정하는 문제

1단계 관료제 비교 도입

2023학년도 수능 14번 · 3점 · 목표 55초

지문에서 A를 관료제로 확정하고 다섯 특징을 방향만 판정하는 문제

난도  도입 1/5

문항 확인

2023학년도 수능 14번

공식 문제지에서 이 문항을 펴고 푸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시도교육청 학평 공개 문제지 · 학원 보유 기출 문제지)

이 자료집은 문항 원문을 수록하지 않습니다. 풀이 절차·힌트·차단 규칙만 제공합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 첫 행동

‘이를 개선하기 위해 B가 등장하였다’에 밑줄을 긋고 A 옆에 ‘관료’, B 옆에 ‘탈관료’를 적는다.

- ‘기계의 작은 틈니’, ‘경직된 업무 시스템’에 동그라미를 치고 A=관료제 근거로 표시한다.
- 선지마다 ‘A는 B에 비해’인지 ‘B는 A에 비해’인지 화살표($A \rightarrow B$ / $B \rightarrow A$)를 먼저 그린다.

① 분류·단위 표시
대상·단위·분모를
먼저 적는다.

② 선지 판정 근거
맞다/틀리다의 근거를 한 줄로.

▼ 막히면 여기부터 — 힌트와 헛갈리는 지점

A와 B를 뒤집어 읽고 선지 다섯 개를 전부 반대로 판정한다.

여기까지 가 미리보 기입니다

지금 보신 것은 9개 유형 중 1개의, 10문항 중 1문항입니다.

전체 자료집에는 90문항이 같은 형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지문 마지막 문장 ‘이를 개선하기 위해 B가 등장’ 한 줄만 보면 뒤에 나온 쪽이 탈관료제다. 이 문장에 밑줄부터 긋는다.

예측 가능성·재량권·전문화를 같은 방향으로 외워서 헛갈린다.

관료제 쪽으로 몰아주는 것(예측 가능성, 연공서열, 전문화·세분화, 하향식)과 탈관료제 쪽으로 몰아주는 것(재량권, 창의성, 유연성)을 두 덩어리로만 외운다.

전문화·세분화 ↔ 유연성

업무를 잘게 쪼개 고정하는 것이 전문화·세분화이므로 관료제다. 탈관료제는 쪼갠 것을 다시 묶어 유연하게 쓴다.

예측 가능성 ↔ 효율성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예측 가능성이 높다. 지문은 관료제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라고 했으므로 효율성으로 판정하면 안 된다.

▼ 정답과 해설

정답 ① 난이도 도입

1단계 — A, B 확정

지문은 A에서 개인이 ‘조직이라는 기계의 작은 톱니’가 되어 창의성과 자율성을 잃는다고 했다.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B가 등장했으므로 A는 관료제, B는 탈관료제다.

2단계 — 관료제 쪽 특징 묶기

표준화된 절차, 연공서열 보상, 업무의 전문화·세분화, 하향식 의사 결정, 높은 예측 가능성을 A 쪽에 몰아 적는다. 선

유형	무엇이 어려운가
사회 집단·조직	세는 대상이 많아 시간이 샌다
자료 수집·연구 설계	개념은 쉬운데 시간이 가장 많이 샌다
일탈 이론	채점표 역추론에서 느려진다
문화 개념·속성	판정이 늦어 틀린다
문화 변동	3개국 이상 전파 방향이 엇갈릴 때
사회 변동·사회 운동	사례가 생소해서 느려진다
계층·이동 표	절대수치·비율·배율이 한 자료에 섞인다
복지·빈곤 표	금액·비율·지수·사람 수가 뒤섞인다
인구·고령화 표	분모가 다른 지표를 환

지 ①③④⑤가 모두 이 목록에서 나온
다.

3단계 — 탈관료제 쪽 특징 묶기

재량권 확대, 창의성, 유연한 대응, 능력
·성과 중심 보상, 수평적 의사소통을 B
쪽에 적는다. 선지 ②가 여기에 걸린다.

4단계 — 방향 대조

①만 A 쪽 특징을 A에 준 서술이다. 나
머지는 관료제 특징을 B에 주거나
(③④), 탈관료제 특징을 A에 주거나
(②), 방향을 통째로 뒤집었다(⑤). 정답
은 ①이다.

① **정답** 관료제는 규약과 절차가 표
준화되어 있어 탈관료제보
다 과업 수행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② **오답** 업무 담당자의 재량권이 큰
쪽은 탈관료제인 B다. 지문
도 A에서 자율성 발휘가 어
렵다고 했다.

③ **오답**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 체계
를 중시하는 것은 관료제인
A다.

④ **오답** 업무 체계의 전문화와 세분
화 정도가 높은 것은 관료
제인 A다.

⑤ **오답** 하향식 의사 결정이 지배적
인 쪽은 관료제인 A이므로
방향이 완전히 반대다.

전체 자료

집 — 271

쪽

90문항 · 첫
행동 90개 ·
개념 혼동 짝
520개 · 오답
차단 규칙
90개 · 시험
장 요령 90
개
유형별 시험
장 루틴 5단
계 · 반복 함
정 정리 · 인
쇄용 풀이 기
록표

와이에스이에듀 · 서울 강
남 대치동
문항 원문은 수록하지 않습
니다. 공식 문제지와 함께
사용하세요.

가장 많이 고른 오답 ②

지문이 A의 단점만 길게 서술해서 'A가 문제 있는 쪽'이라는 인상만 남고, 재량권이 A 쪽인지 B 쪽인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간다.

차단 규칙 — '재량권·창의성·자율성' 세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탈관료제 쪽에 표시한다. 지문에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가 A 설명으로 적혀 있는지만 다시 본다.

시험장 요령

- 이 문항은 자료 해석이 아니라 암기 확인이다. 지문은 A 확정용 한 줄만 보고 바로 선지로 내려간다.
- ①을 읽고 맞다고 판단되면 ②~⑤는 방향 화살표만 확인하고 20초 안에 끝낸다.